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6월말 기준)

홍서희 | 책임연구원(3705-6153)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 **세계(-0.3%p ↓): 미국과 유로존에서 고물가 및 금융여건 긴축 영향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글로벌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JPM). 다만 중국의 회복이 글로벌 경기 하강을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Bardays)**

○ 미국(-0.4%p ↓): 고물가 등으로 소비지출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 성장률이 추세 수준(1.8%, 연준)을 하회할 전망(JPM 등). 다만 견조한 고용시장과 투자 등으로 연내 리세션 회피 전망이 우세

– 일각에서는 연준의 물가대응 의지 강화, 경기 모멘텀 둔화 가속 등으로 '22.4분기부터 리세션을 전망(Nomura). 아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Now 추정치가 -2.1%로 하락하며 가술적 경기침체 가능성 대두

○ 유로존(+0.2%p ↑): 1분기 성장률이 큰 폭 상향조정(0.3% → 0.6%, qoq) 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배급제 시행 가능성에 따른 심리 악화, 美 성장전망 하향에 따른 파급효과 등으로 하반기 하방리스크가 확대(JPM 등)

– 6월 인플레이션율이 8.6%(yoy)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9월경 9%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점 예상(B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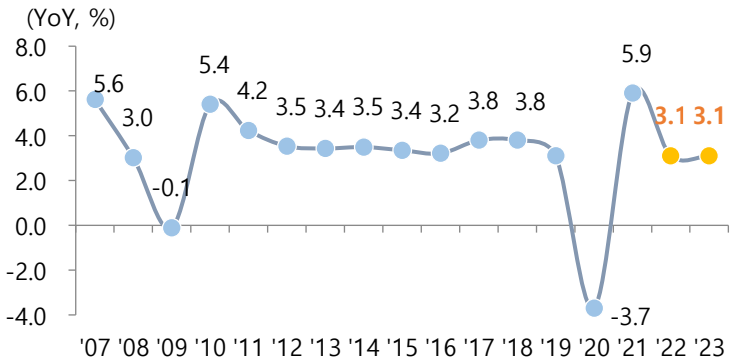
○ 중국(-0.3%p ↓): 상하이 등 봉쇄 완화에 따라 제조업 PMI 반등(50.2, 6월) 등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코로나 재확산시 봉쇄 위험 잔존(Barclays, Nomura)

○ 일본(-0.2%p ↓): 경제재개에 따른 민간소비 및 재고투자 확대가 2~3분기 견조한 성장을 지지하겠으나 주요국 경기침체 위험 증대, 공급망 악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Barclays)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f	2023f
Barclays	3.0	2.9
BNP Paribas	3.4	3.5
BoA-ML	3.2	3.2
Citi	3.0	2.8
Goldman Sachs	3.2	3.0
JP Morgan	3.4	2.9
Nomura	2.9	3.0
Societe Generale	3.2	3.4
UBS	3.0	3.1
평균	3.1(-0.3)	3.1(-0.2)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f	2023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2.0	1.5	1.5	1.0	2.2	1.1
BNP Paribas	-	-	-	-	2.6	1.9
BoA-ML	1.5	2.5	1.8	1.3	2.3	1.4
Citi	1.6	2.3	2.2	1.5	2.3	1.7
Goldman Sachs	1.9	1.8	0.8	1.0	2.2	1.3
JP Morgan	1.0	1.0	1.5	1.8	2.0	1.3
Nomura	1.4	0.4	-1.4	-1.6	1.8	-1.0
Societe Generale	3.7	2.1	1.2	1.5	2.6	1.9
UBS	1.7	2.8	2.1	1.3	2.4	1.7
평균	1.9(-1.4)	1.8(-0.8)	1.2(-0.7)	1(-0.7)	2.3(-0.4)	1.3(-0.5)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f	2023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0.9	1.1	-0.9	-0.5	2.8	0.5
BNP Paribas	-	-	-	-	2.5	2.3
BoA-ML	0.3	0.6	1.0	1.4	2.7	1.3
Citi	-0.9	0.9	0.8	2.0	2.5	1.9
Goldman Sachs	0.9	0.9	1.1	2.0	2.9	1.7
JP Morgan	1.5	2.0	2.0	2.3	3.2	2.1
Nomura	0.0	-1.2	-2.4	-2.0	2.2	-1.2
Societe Generale	1.0	1.9	1.6	2.0	3.0	2.0
UBS	0.8	0.4	0.4	1.2	2.7	1.2
평균	0.6(-0.3)	0.8(-0.6)	0.5(-1)	1.1(-1.1)	2.7(0.2)	1.3(-0.7)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f	2023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1.0	3.6	3.9	4.5	3.3	5.3
BNP Paribas	-	-	-	-	3.7	5.7
BoA-ML	(-11.0)	(17.3)	(8.7)	-	3.5	6.0
Citi	0.2	4.8	5.5	5.2	3.9	4.8
Goldman Sachs	1.5	5.0	4.5	4.3	4.0	5.3
JP Morgan	-(5.4)	(7.5)	(7.3)	(5.5)	3.7	5.3
Nomura	0.3	4.0	4.0	3.6	3.3	5.5
Societe Generale	2.0	3.5	5.5	5.0	4.0	5.7
UBS	1.4	3.1	2.9	3.2	3.0	5.4
평균	1.1(-0.5)	4(-0.5)	4.4(-0.1)	4.3(-0.4)	3.6(-0.3)	5.4(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f	2023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5.0	4.7	2.0	1.1	2.0	1.9
BNP Paribas	-	-	-	-	1.1	0.6
BoA-ML	2.9	5.8	2.3	-	1.7	1.6
Citi	2.5	2.7	1.9	1.9	1.2	1.8
Goldman Sachs	3.6	2.6	2.0	1.4	1.5	1.7
JP Morgan	4.0	3.5	2.5	1.0	1.7	1.8
Nomura	5.8	3.4	-0.3	-0.6	1.8	0.8
Societe Generale	3.1	3.7	2.2	1.5	1.5	1.9
UBS	4.1	4.5	2.2	0.6	1.4	1.3
평균	3.9(-1.3)	3.9(-0.2)	1.9(-0.2)	1(-0.4)	1.5(-0.2)	1.5(-0.3)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